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주요 내용과 체계

홍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mhong@kinu.or.kr

I. 머리말

북한은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을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와 2021년 10월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 통해 추진을 공식화했다. 제8차 당대회에서는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 미사일, 군 정찰 위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5,000km급 대륙간탄도미사일, 무인기 등 주요 개발 증거거나 개발 예정인 전략무기들을 열거하며 “국방 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언급, ‘5대 핵심과업’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이 계획 공개 이후 2021년 8건, 2022년 46건, 2023년 34건, 2024년 32건의 핵·미사일 관련 실험 및 훈련을 진행하며 다종화된 무기체계 개발을 과시해 왔다.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종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대함, 잠대함, 함대함) 전략순항미사일(SLCM), 핵무인수중공격정(핵어뢰), 군사 정찰 위성 등 무기체계의 사거리 및 운용 플랫폼의 ‘광폭화’, ‘다변화’가 특징적이다.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밝혔듯 “15,000km 사정권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¹⁾에 따라 한반도, 주일미군, 괌 기지, 미국 본토 등을 대상화한 다종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노동신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 1. 9.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동북아시아에 조성된 군비경쟁 구도, 미중 전략 경쟁의 첨예화와 냉전적 진영화 구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속에서 한반도의 정세 불확실성을 그 어느 때보다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2025년 말까지 조성된 국제 및 지역의 정세와 대치 구도를 활용하면서 대미 억제력을 최대한 과시하고 대남 대적 행동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며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한국의 대응 전력 강화,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주변국 군비 경쟁 가열 등을 유발하며 미중·미러 갈등의 심화와도 연계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북한은 향후 국방력 발전 계획의 단계적 진전과 성과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보다 공세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미사일 능력의 실질적 진전에 맞춰 대미, 대남, 대외 차원에서도 변화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선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 과업 내용, 추진체계, 운용 현황, 전략적 의도 등을 파악한다.

II.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의 부문과 주요 과업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의 김정은 사업총화보고와 2021년 10월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¹⁾에서 김정은이 행한 연설을 통해 계획의 존재가 공개됐다. 다만, 제8차 당대회에서 언급된 이후 이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다.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된 체계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아래와 같다.²⁾

김정은 총비서는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2020년까지 제7기 총결 기간의 국방력 강화 성과를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 보고했다. 국방과학부문과 국방과학연구부문이다. 다음 <표 1>에서 보듯, 국방과학부문은 크게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무기로 구분된다. 이 두 부문 모두 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표현했다. 이 무기들은 대부분 이후 열병식을 통해 공개됐다. 다음으로 국방과학연구부문은 ‘연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대부분 연구의 마감 단계나 설계 완성 단계로 표현했다. 여기에서 열거한 무기들은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에서 ‘5대 핵심과업’에 포함됐다. 따라서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기간의 개발 무기들은 5대 핵심과업과 나머지 군수생산부문으로 구성돼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³⁾

2)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 1. 8.

<표 1>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중 국방력부문

총결 기간 성과(2016~2020)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2021~2025)
국방과학부문	중핵적 구상(목표)
[전술핵무기] • 초대형 방사포 → 개발 완성 • 신형전술로켓 → 개발 • 중장거리순항미사일 → 개발 [재래식 무기] • 주력 탱크 → 개발 방향, 생산 공정 일신 • 반항공 로켓중함체 → 개발 • 지행곡사포 → 개발 • 반장갑무기 → 개발	• 전술핵무기 개발(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 15,000km 내 전략적 대상 명중률 제고(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
국방과학연구부문	5대 핵심과업
•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 연구사업 마감 단계 •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 연구 종료/시험 제작 • 중형 잠수함 → 현대화 목표 설정 • 핵 잠수함 → 설계 연구 종료, 최종 심사 단계 • 각종 전자 무기 → 설계 완성 • 무인 타격 장비 → 설계 완성 • 정찰 탐지 수단 → 설계 완성 • 군사 정찰 위성 → 설계 완성	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② 수중 및 지상 고체연진 ICBM 개발사업 ③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핵무인수중 공격정) 보유 ④ 군사 정찰 위성 운용 ⑤ 500km 전방중심 정밀 정찰 무인정찰기 개발

자료: 『노동신문』, 2021. 1. 8 참고하여 필자 작성.

구체적인 사업체계는 2023년 12월 제8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2024년 국방력 발전 계획 세부 수행 과업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⁴⁾

이 체계를 보면, 국방력 발전 계획은 총 8개 세부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업부문, 핵물질 추출 및 핵탄두 양산 관련 핵무기부문, 각종 미사일 개발 및 생산을 하는 미사일 개발 및 생산 부문, 정찰 및 항법 위성 등을 개발하는 우주개발부문, 해군 수중 및 수상 전략 증강에 해당하는 선박공업 부문, 무인기를 개발·생산하는 무인항공공업 부문, 전자전 무기를 개발·생산하는 탐지전부문, 노동적위군을 비롯한 민간부문 무력을 담당하는 민방위무력부문 등이다. 이들 세부부문은 2021년 1월 당 제8차 대회에서 언급한 ‘중핵적 구상’과 ‘5대 핵심과업’과도 계통적으로 동일하다.

3) 홍민 외,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통일연구원, 2023, p.93.
 4) 『노동신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표 2>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국방력 발전 계획 수행 과업

과업 부문	내용	의도	예상 행보 및 수행 내용
군수 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장 장비 개발 생산 확충 당 국방발전전략 성공적 실행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수생산 우선순위 자체 전력화 수요 러시아 공급 물량 해외 무기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 기계공장 현대화 - 김정은 중요 군수공장 방문(8회) - 240mm 신형 방사포
핵무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무기 생산계획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물질, 핵탄두 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물질 추출 확대 핵탄두 양산체계 - 핵무기연구소·농축우라늄시설 방문, 신형 원심 분리기, 핵물질 증산(2024. 9. 12, 2025. 1. 29) - <화산-31> 핵탄두 공개
미사일 개발 및 생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목표와 전투적 과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사일 완성형 모델 다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체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완성도 제고 SLCM, SLBM, 함대함, 지대공, 지대함 공대지, 공대공 - <화성-19>형 고체형 '완결판' -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 신형 전술유도 <화성-11다-4.5>(초대형 탄두) -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11라> - <화살-1>, <화살-2>, <화살-1라-3>형 - <불화살-3-31> - <바다수리 6> - <해일-5-23> - <별지-1-2> 신형 초대형 방사포
우주 개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의 정찰 위성 추가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개발 일정 의식 경쟁적 우위 과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찰 위성 발사 1차: 2023년 5월 31일 실패 2차: 2023년 8월 24일 실패 3차: 2023년 11월 21일 성공 4차: 2024년 5월 27일 실패 러북 기술협력, 정찰 및 항법 위성 개발 가능성
선박 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함선공업혁명 해군 수중 및 수상 전력 제고 국방력 발전 5개 중점 목표 중 미진한 과업 빠른 기간 집행(중심과업) 해군의 핵무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군 현대화 장기계획 함선 제작 및 해군기지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형 잠수함 개조, 핵추진잠수함 건조 함선 제작 해군기지 현대화 군항 방어 반항공 및 해안방어 무기 - 해군결 연습, 해군부장장비 현대화(2023. 8. 29) - <김군옥영용함> 진수식, 해군의 핵무장화계획 강조(2023. 9. 8) - 선박건조사남포조선소 방문(2024. 3. 2) - 해군기지건설 현지요해(2024. 9. 7) - 3,000톤급 신형 수상함 건조 공개(2024. 12. 30) -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및 수상함 건조 공개(2025. 3. 8)
무인 항공 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무인 무장 장비 개발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인 정찰기, 전투용 드론 등 전력화 및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격용, 정찰용, 자폭용 드론 개발 러시아와 공동개발 및 제작 - <셋별-4>, <셋별-9> 공개 비행 - 자폭드론 2종 공개(하름, 람찻-3급) - <국방발전-2024> 드론 8~10여 종 공개
탐지 전자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전 수단을 개발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술핵 실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GPS 교란
민방위 무력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적위군 싸움 준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준비 차원의 긴장 조성, 주민 통제·결속 	

자료: 필자 작성.

이와 같은 8개 부문의 세부 내용을 수렴하는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의 목표는 ‘중핵적 구상’이란 표현으로 제8차 당대회 당시 제시된 바 있다. 첫째, 핵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하는 전술핵무기 개발이다. 소위 타격 대상에 따라 다종된 전술핵무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한반도 전 영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지속하여 억제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초대형 핵탄두는 기본적으로 최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에 탑재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본토나 괌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능력을 통해 대미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5,000km 사정권 내 전략적 목표들을 타격할 수 있는 명중률(정확도)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다. 결국 8개의 세부 수행부문은 위의 세 가지 목표를 위해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 특징

1. 북한의 핵무기체계 개발 및 실전화 분류

2021년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착수 이후 무기 실험이나 훈련에 대한 북한 보도에서 나온 표현을 통해 등장 무기들과 북한식 핵무기 분류를 통해 국방력 발전 계획이 목표로 하는 내용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1) 북한의 핵무기체계 개념

‘핵무기체계’는 핵무기와 핵무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 전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체계를 운용 영역의 차원에서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전역핵무기로 구분한다.⁵⁾ 우선 ‘전략핵무기’는 “상대측의 대도시와 산업중심지, 지휘중추와 핵무력집단 등 전략적 대상물을 타격하기 위한 핵탄과 그 운반수단으로 이루어진 무기”로 정의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사거리가 6,400km 이상인 지대지 미사일), 전략폭격기, 원자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에 의해 발사된다고 설명한다. 둘째, ‘전술핵무기’는 “전선이나 작전전술적 중심지대에 있는 유생역량과 화력기재, 땅크, 함선, 지휘소 등을 타격하기 위한 핵탄과 그

5) 『노동신문』,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정밀화」, 2013. 5. 21.

운반수단으로 이루어진 무기” 등으로 정의한다. 전술미사일, 원자포, 전투폭격기, 유도어뢰 등이 있다. 셋째, ‘전역핵무기’는 “지역규모의 전쟁마당에서 사정이 중거리인 운반수단에 의하여 발사되는 핵무기”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핵무기의 기능적 개선 관련 인식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는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정밀화된 위력한 전쟁억제력이다”라고 밝히며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소형화의 경우 15kt 이하로 정의하고 극소형 핵탄, 소형 핵탄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북한의 제1~6차 핵실험 폭발력으로 본다면 북한은 극소형, 소형, 중형 등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북한의 핵무기 기능 정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정밀화

구분	개념	목적과 내용
소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탄의 폭발력 15kt 이하인 무기를 만드는 것 • 극소형 핵탄: 1kt 이하 • 소형 핵탄: 1~5kt • 중형 핵탄: 15~100kt • 대형 핵탄: 100~1,000kt • 초대형 핵탄: 1M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사용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며 경제적 효과성 제고 • 폭발력이 클 경우 실질적 사용의 어려움 • 플로토늄 50kg 정도로 한 개의 원자탄 제조하던 것을 5kg 정도로 제조한다면 생산비는 1/10로 감소
경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탄의 총체적 질량을 가볍게 만드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견고하고 잘 녹지 않으며 방출되는 중성자를 반사시키는 금속의 원자탄 외피를 야금 기술을 이용하여 무게를 줄이는 것
다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핵 반응 방식: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 등 • 파괴력과 사거리: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전역핵무기 • 핵폭발 장소: 공중, 지상, 지하, 수상, 수중핵탄 • 핵탄의 형태와 용도: 핵탄두, 핵폭탄, 핵포탄, 핵유도어뢰, 핵조종지뢰
정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폭발이 얼마나 정확히 진행되고 대상물을 얼마나 정확히 명중하느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폭발이 더 위력하게 더 정확히 일어나게 하는 것 • 대상물을 정확히 명중

자료: 『노동신문』,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정밀화」, 2013. 5. 21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2) 북한의 전략 무기와 전술핵무기 구분

세부적으로 2021년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언급 이후 무기 실험이나 훈련에 대한 보도에서 나온 표현을 통해 각 무기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전략 무기’ 또는 ‘전략 무력’으로 언급한 것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화성-10〉형 무수단 미사일, 〈화성-12〉형, 〈북극성-2〉형, 〈화성-14〉형, 〈화성-15〉형, 〈화성-17〉형, 〈화성-18〉형, 〈화성-19〉형, 극초음속 미사일, 〈해일〉 핵무인수중공격정, 전략순항미사일 등이다. 대체로 2,000km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전략 무기’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북한의 전략 및 전술핵 무기 구분 및 엔진연료계통

구분	비행·운용거리	모델	엔진/연료
전략 무기	SLBM	〈북극성〉	고체
		〈북극성-3〉	고체
		〈북극성-4사〉	고체
		〈북극성-5사〉	고체
	MRBM	〈화성-9〉(스커드-ER)	액체
		〈화성-10〉 무수단	액체
	IRBM	〈북극성-2〉	고체
		〈화성-12〉	액체
	ICBM	〈화성-14〉	액체
		〈화성-15〉	액체
		〈화성-17〉	액체
		〈화성-18〉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활공체형)	액체(앰플화)
		(원뿔형)	
〈화성-16나〉		고체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시리즈	액체	
전략순항미사일 (SLCM)	〈화살-1〉형		
	〈화살-2〉형		
	〈불화살-3-31〉형		
전술핵무기	SLBM	미니 SLBM(2021. 10 첫 공개)	고체
	SRBM	〈화성-6〉형(스커드-C)	액체
		저수지수중발사탄도미사일	고체
		KN-23B(철도기동형)	고체
		KN-23(이스칸데르형, 〈화성-11나〉형)	고체
		KN-24(에이태프스형)	고체
		고중량탄두형(〈화성-11다〉형)	고체
		KN-25(초대형 방사포)	고체

자료: 필자 작성.

북한은 이미 단거리급 전술핵 미사일,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고체연료형으로 개발 완료했거나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북한식 표현으로 ‘전략 무기’) 라인업의 고체연료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4년 4월 3일 보도에서 김정은은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강조했다.⁶⁾ 실제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공개한 내용으로 보면, 근거리(CRBM), 단거리(SRBM), 준중거리(MRBM), 중거리(IRBM), 장거리(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모두에서 실전화

6) 『노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중국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 2024.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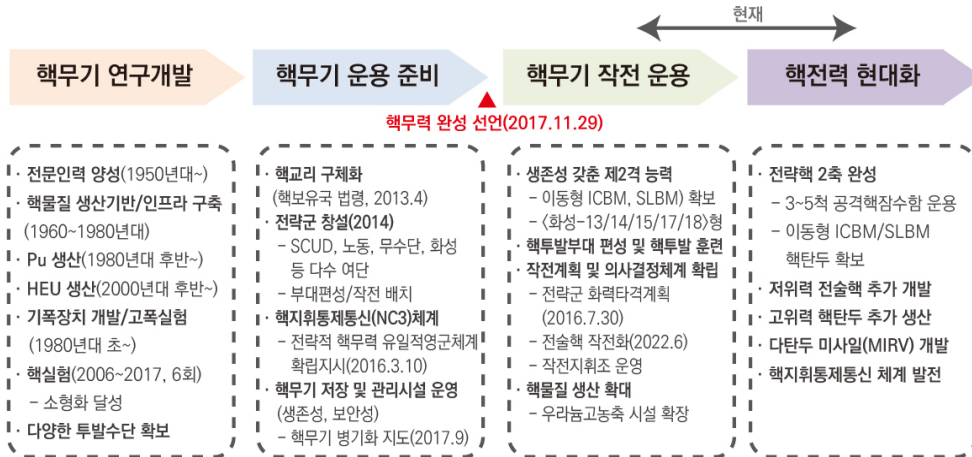
무기체계로서의 완성도를 차치하더라도 엔진연료계통은 고체연료화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고체연료형으로는 2015년 <북극성-1>형을 처음 발사한 이후 약 9년여 만에 전 사정거리의 고체연료형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2. 국방력 발전 계획 기간 핵무기 개발 및 전력화 특징

(1) 핵 개발 및 전력화 수준

북한의 핵 개발 및 전력화 수준을 통해 핵전략의 틀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핵무기를 개발했던 국가들은 연구개발, 핵무기의 작전 배치 및 운용 준비, 작전 운용, 전력 증강 및 현대화 등의 4단계를 거쳐 일정 규모의 핵전력을 개발·배치·운용한다.⁷⁾

[그림 1] 북한의 현재 핵개발 수준



자료: 함형필, 「북한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37권 3호, 2021, p.25.

현재 북한의 핵 개발 및 전력화 수준은 현재 다양한 전술적, 전략적 여제를 수행할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데, 우선 생존성을 갖춘 제2격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형 및 고체형 ICBM 및 SLBM의 확보, 장거리 미사일 라인업의 개량화 확장, 극초음속 미사일 및 변칙성이 강한 전술핵 미사일 다종화 등이 대표적인 생존성 확대 노력이다. 둘째, 전술핵 및 전략 무기의 발사를 담당하는 부대를 편성하고 핵무기 발사 훈련을 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적인 작전 운용에 필요한 실전

7) 함형필, 「북한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p.25.

매뉴얼을 만들고 반복 연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작전 계획 및 즉각적 핵무기 발사 실행을 위한 지휘 및 현장 운용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술핵 미사일 대량양산체계에 맞게 여기에 탑재할 핵탄두 양상을 위해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다. 종합하면, 북한의 핵 개발 및 전력화의 수준을 함축하는 핵심 지향점은 ‘생존성’, ‘실전성’, ‘운용성’, ‘대량생산’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국방력 발전 계획 세부 수행의 특징

김정은 집권 이후 2021년부터 추진된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기간 무기체계 개발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첫째, 전술핵 공격 능력 확보, 둘째, 중장거리 타격 능력 제고, 셋째, 전술·작전·전략급 미사일의 고체연료화, 넷째, 핵무기 사용 플랫폼의 확장, 다섯째, 정찰 및 대공 능력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림 2] 북한의 2024년 국방력 발전 계획 세부 계획 수행 내용

1. 무장장비의 대량생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장비 생산의 현대화, 대량화 강조 · 김정은 군수공장 현지지도 7회 · 자체 전력화 및 러시아 공급 물량 확보 차원
2. 핵물질 생산의 증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라늄농축시설(강선) 첫 공개 · 핵물질 생산의 증산 강조
3. 전술·작전·전략급 미사일 고체연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리,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고체연료화 · 2024년 약 12종의 지상, 수중 발사 미사일 공개
4. 핵무기 운용 플랫폼의 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술급 근/단거리 미사일 개량 모델 및 대공미사일 공개 · 지상, 수중 및 해상 발사 무기(SLCM, 핵어뢰, 지대함) · 고체연료 및 콜드런치형 ICBM <화성-19>형 공개
5. 무인기 다종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 성능시험 2회 공개 · <국방발전-2024> 10여 종 무인기 공개 · 자폭형, 공격형, 정찰용 무인기 개발
6. 해군 수중/수상전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함선공업혁명 강조, 빠른 기간 집행 강조 · 해군기지, 선박제작 공개(3,000톤급 이상 신형 호위함)
7. 정찰 및 감시능력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 언급 · 4차 발사(5.27) 실패 이후 추가 발사 지연

자료: 필자 작성.

국방력 발전 계획 기간 북한 무기체계 개발은 핵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광폭의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한 대미 억제력의 확보 노력이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거나 실전화 한 미사일들은 주한미군 및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전구, 주일미군 및 괌 기지를 대상으로 한 한반도 인근 해역 및 동북아 역내, 그리고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한 장거리용 등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및 주둔지, 주요 작전 영역, 전략자산 전개지 등을 목표로 근거리,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넓은 스케일의 미사일 라인업 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생존성 확보, 응징 보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SLBM의 개발, 발사 장소 및 방식의 다양화(이동식 차량, 사일로, 철도, 수중 등), 무기체계의 고체연료형화·탄두조종화·다탄두화 등은 모두 사전 노출을 최소화하는 은밀성과 기동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사일 비행의 변칙 기동을 피하고 있는 것은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핵전략, 첨단화된 감시·정찰 및 미사일 방어 능력 등에 대응해 최대한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색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술핵 공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주한 및 주일 미군과 한국군을 인질화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위협, 지상 및 해상으로의 접근, 전시 증원 개입 등을 억제하는 ‘북한의 반위협/반접근/반개입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대함·함대함·잠대함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지상과 해상으로 접근하는 한미의 전력을 차단·억제하는 개념이다. 이들 무기가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이 가장 많이 대응용으로 발사한 무기들이다.

IV. 결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가이자 주적으로 규정했다. 2023년 12월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통일논의 포기를 선언하며 ‘남조선’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이어진 2024년 1월 9일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를 통해 김정은은 직접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규정은 곧 당의 방침이자 모든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적대적 두 국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으로 표출되고 있는 대적투쟁원칙이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핵전략과 국방력 발전 계획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적투쟁원칙’은 표면적으로는 호전성과 공세성으로 볼 수 있으나 상대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상대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군사전략 및 핵전략의 사고가 내포돼 있다. 다시 말해 ‘대적성’이란 상대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의 의미, 상대의 특정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억제’의 핵심은 핵무기의 실전적 사용 가능성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며, ‘대적행동’에 전술핵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시킨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억제의 핵심인 핵무기 고도화 및 실전화를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의 요체는 바로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대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과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이 모두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구체화된 점, 전술핵무기 사용을 불사하는 ‘대적행동원칙’의 표명이 2022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점, 이들 사이에는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전략,’ 그것을 구체화하는 핵능력 고도화 실행 계획인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미·대남 대응 전술인 ‘대적투쟁원칙,’ 이들 사이에는 유기적 연계성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방력 발전 계획에 따라 핵무기체계를 실전화하는 것과 동시에 ‘대적투쟁’ 역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둘은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표출하는 ‘대적성,’ ‘적대적 두 국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전략과 국방력 발전 계획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함형필, 『북한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p.25.
- 홍민 외,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통일연구원, 2023, p.93.
-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 1. 8.
- _____,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 1. 9.
-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 2024. 4. 3.
- _____,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2013. 5. 21.